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김진영**

목 차

- | | |
|-------------------|------------------------------------|
| I. 서론 | 2. 직종별 취업구조 |
| 1. 문제의 제기 | 3. 종사상 지위별 취업구조 |
| 2. 이론적 논의의 간략한 검토 | Ⅱ. 임금격차의 구조 |
| 3. 분석방향과 자료 | Ⅳ. 부문간 노동력이동 및 비공식
부문 노동시장의 이질성 |
| Ⅱ. 노동력의 취업구조 | V. 요약 및 결론 |
| 1. 산업별 취업구조 | |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제주지역사회는 한국사회 일반이 보여주는 사회·경제구조 및 그 변동과정과는 현상적으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구조와 변동의 양상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일반성에 접맥되어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제주사회가 가지는 내재적 고유성과 외재적 일반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

* 이 논문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의 1986년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문대학 조교수

여 구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 글의 관심대상인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자본주의적 보편적 원리에 입각한 한 국가 사회의 노동시장의 진행·발전은 하위 지역사회가 가지는 여러 고유 특성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현상을 달리하면서 지역노동시장에 적용된다. 지역노동시장의 제조조건과 구조는 전국 또는 지역내의 산업구조, 자본축적의 진전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 노동력 수요·공급구조 및 사회관계의 여러 세력 등에 의해 결정되고 또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생활기회는 취업과 고용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노동시장에서 지역사회성원들은 직업적 지위를 획득하고 최소가치의 배분에 참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따라 취업의 용이성, 노동조건, 임금 및 소득수준 등이 상이해진다. 그런 만큼 노동시장은 사회성원들의 삶이 생생하게 반영되는 생활세계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노동시장은 지리적 조건과 특수한 산업구조로 인해 주로 3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지역노동시장 또는 전국노동시장과는 달리 매우 특이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선행 연구의 집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예비적 탐색의 단계로서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논의의 간략한 검토

인적 자본론(Human Capital Theory)¹⁾ 으로 대표되는 신고전파경제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에 의해 형성되는 장기기 때문에 유동적·경쟁적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임금은 각자의 한계생산력에 의해 서열화되며 훈련과 교육에 투자한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 직종, 기업, 산업 등은 동질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한다는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실재를 도외시함으로써 독점자본주의 사회의 경제현실을 설명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 정부와 개인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실업,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계급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과 노동통제 및 노동력차별화가 심화되었다는 점 등은 동질적 노동시장에 대한 가정의 효용성을 의문시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발칸화'(the balkanization of labor markets)²⁾ 주장 이후 노동시장은 두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절되어 있고 각각은 상이한 특성을 갖는 원리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빈곤과 저임금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논지가 강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지는 크게 볼 때

1) Becker, Gary S., *Human Capital*, New York: Nat. Bur. of Econ. Research, 1964.

2) Kerr, Clark, "The Balkanization of Labor Markets", in W. E. Bakke et al., *Labor Mobility and Economic Opportunity*, New York: Wiley, 1954.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r Market Theory)³⁾과 급진이론(Radical Theory)⁴⁾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를 독점자본주의의 동태적인 경제구조 변화와 정치·경제적 세력들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적 자본론과 매우 상이한 관점을 지닌다. 이중 노동시장론이 시장 본질을 사회·경제구조(경제의 이중구조와 사회관습적 요인)와 기술변화에서 찾는 반면에 급진이론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자본이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의식적·체제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의 주요 관심은 주로 이 이론들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많은 논자들은 해방이후의 자본축적과정과 관련하여 경제의 이중구조(독점자본과 경쟁적 자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제시한다.⁵⁾ 이러한 이중경제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의 본질은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제조업과 타산업간에도 나타나며,⁶⁾ 성, 학력, 직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본질경향이 존재한다.⁷⁾

한편 제3세계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사회경제구조를 파악하려는 이론들로 비공식부문론을 지적할 수 있다. 비공식부문 개념의 다양성⁸⁾과 분석적 유용성의 한계⁹⁾에도 불구하고 비공식부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많은 비공식부문연구자들은 이원론의 입장에서 공식·비공식부문간의 단절적 성격을 강조해왔다.¹⁰⁾ 그러나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과 복잡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련을 맺음으로써 내부적으로

- 3) Doeringer, Peter and M. Piore.,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Mass.: Lexington Books, 1971; Piore, M. J., "Notes for a Theory of Labor Market Stratification", in R. C. Edwards, M. Reich and D. M. Gordon(eds). *Labor Market Segmentation*, Mass.: D. C. Heath and Co., 1975.
- 4) Gordon, David M., *Theories of Poverty and Underemployment*, Mass.: Lexington Books, 1972; Edwards, Richard C., *Contested Terrain*, New York: Basic Books, 1979; Edwards, R. C., M. Reich and D. M. Gordon, *op. cit.*
- 5) 탁희준 외, 「임금제도와 노동경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72; 김형기, "노동력차별과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제4권, 1980; 황한식, "한국노동시장의 구조", 박현채 외,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돌베게, 1985.
- 6) 전기호, "임금과 근로조건", 임종철, 배무기(편), 「한국의 노동경제」, 문학과 지성사, 1980; 김성국,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계층과 조직의 문제: 본질론의 비판적 적용을 위하여", 「한국사회학」 제17집, 1983; 황한식, *op. cit.*
- 7) 배무기, "한국의 노동시장구조", 임종철, 배무기(편), 「한국의 노동경제」, 문학과 지성사, 1980; 김성국, *op. cit.*; 황한식, *op. cit.*
- 8) McGee, T. G., "Peasants in Cities: a Paradox, a Paradox, a most Ingenious Paradox", *Human Organization*, vol. 32, 1973.
- 9) Bromley, Ray., "Introduction-The Urban Informal Sector: Why Is It Worth Discussing", *World Development*, vol. 6, Nos. 9-10, 1978.
- 10) Hart, Keith,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Employment in Ghan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11, No. 1, 1973; McGee, T. G., *op. cit.*; Geertz, C., *Peddlers and Princ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3; Mazumdar, D., "The Urban Informal Sector", *World Development*, vol. 4, No. 8, 1976.

는 이질적인 노동력구성과 사회관계의 분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을 자율적 또는 보완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¹¹⁾, 비공식부문을 주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입장¹²⁾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한 비공식 부분의 소상품생산활동의 종속성 때문에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¹³⁾은 각기 내부적 다양성을 간과하는 일면적 설명력을 갖는다. 비공식부문의 노동력 전체가 주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자본축적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공식부문 노동력이 비공식부문의 일부 직종(예컨대 안정적이고 소득수준이 일정하게 보장되는)을 상향이동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논의들이 지역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지니는 함의는 어떤 것인가? 노동시장분절론은 분석단위가 기업과 산업 어느 쪽이든 주로 핵심산업인 2차산업과 관련된 분절현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후술하듯이 제주지역은 한국사회 일반이 보여주는 산업구조와는 매우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절론을 무리하게 적용시키기 보다는 제3세계 사회·경제구조의 특수성을 해명하기 위해 논의되는 비공식부문론과 친화력이 있는 이론적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은 노동조직에 그리고 공식-비공식 분류는 경제구조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설명의 대상과 관심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노동시장분절론과 비공식부문론은 이론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구조를 부문 또는 분절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점과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분절화의 경향과 분절된 부문간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설명에서 유사한 연결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¹⁴⁾ 즉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혹은 대기업노동시장과 중소기업노동시장, 공식부문 노동시장과 비공식부문 노동시장간의 관계와 분절성은 유사한 이론적 함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분절에 따른 노동조직과 공식-비공식부문의 분류를 교차시키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림1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유추하여 교시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는 크게 적용되지 않았다.).

-
- 11) Oshima, H. T., "Labor Forces Explosion and the Labour Intensive Sector in Asian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9. No.2, 1971 ; ILO, *Employment, Incomes and Equality*, Geneva: ILO, 1972 ; McGee, T. G., *op. cit.* ; Sethuraman, S. V., "Urbanization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Djakart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112, Nos. 2-3, 1975.
 - 12) Quijano, A., "The Marginal Pole of the Economy and the Marginalized Labor Force", *Economy and Society*, vol.3. No.4, 1974.
 - 13) Moser, C. O. N., "Informal Sector or Petty Commodity Production: Dualism or Dependence in Urb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6, Nos.9-10, 1978.
 - 14) 김성국, *op. cit.*, p. 55.

경 제 부 문

		공 식(F)	비공식(I)
노동시장	1차시장 (P)	FP	IP
	2차시장 (S)	FS	IS

〈그림1〉 경제부문과 노동시장 구조

〈경험적 차원에서의 구분기준〉

경제부문: 사업체규모, 자본과 기술수준, 정부통계상의 파악가능여부, 시장 지배력 수준 등

노동시장: 시장능력, 임금 및 보상수준, 노동조건, 직무안정성과 자율성, 진입의 용이성 등

3. 분석방향과 자료

본 논문의 일차적 관심은 지역범주에 한정시켜 노동시장의 본질적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동력의 취업·고용구조(2장)를 살핀후 임금격차(3장)를 검토할 것이다. 이 경우 서로 경쟁중인 다수 개별 자본간에 현상하는 기업규모별 노동시장구조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사소한 개별 자본 혹은 사회적 총자본하에서 노동력 차별화에 기초하여 실현되는 성, 학력, 직종별 노동시장 구조를 살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비농(어)업부문에서 접하는 비공식부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공식부문 내적 다양성과 공식-비공식부문간의 관계를 노동력 이동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4장). 〈그림 1〉에서의 FP와 FS의 관계는 노동조직 또는 개별기업 수준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으나 지역적 특수성과 자료의 부족을 감안하여 실제 분석에는 제외시켰다.

사용될 자료는 성격상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각종의 공식통계자료들은 주로 전국단위의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역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와 「고용구조특별조사결과보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취업 및 고용구조, 임금실태, 노동력이동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둘째, 농(어)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자 279가구를 대상으로 87년 7월에 질문서를 통해 면접하였다. 다단계식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된 이들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429명인데 390명에 대한 경제활동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90명중 임금노동자가 228명, 자영업주와 고용주들이 162명이었다.

II. 노동력의 취업구조

1. 산업별 취업구조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3차, 1차, 2차산업의 순으로, 1차산업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광공업부문이 점증하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산업구조와는 달리 상이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¹⁵⁾ 이같이 3차산업이 비대하고 2차산업이 극히 취약한 것은 60년대 이후의 국가주도의 관광개발전략과 자연적 환경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제주사회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취업자 수에 있어서 가장 많아 여전히 사회성원들의 경제활동의 주된 영역이다. 농업의 취업인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은 상업적 농업이 지역적 독점생산을 통한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농업자체가 그 만큼 매력있는 유인적 요인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적 요인은 육지부나 세계상품시장으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 반을수록 감소하게 되어 다른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산업입지여건과 관광중심의 개발전략과 관련성이 크다. 그 결과 3차 서비스 및 사회간접자본이 크게 성장하였다. 3차산업은 대부분 관광산업의 국가적 육성전략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기는 하였지만 취업자구성에서는 1차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3차산업은 주민총생산액의 면에서 지역의 대표적 산업이고 관광산업은 국가가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국가와 독점자본 중심의 성장산업이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의 요구에 의해 외화획득을 목표로 관광산업이 분업적으로 육성되고 있음¹⁶⁾을 의미한다.

15) 1960년의 제주지역 주민총생산액이 1차, 2차, 3차산업의 경우 각각 61.5%, 5.4%, 33.1%이던 것이 1984년에는 33.1%, 3.3%, 63.6%로 변모하여 1차산업이 지배적인 농업사회에서 2차산업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3차산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한 사회로 변화하였다.

16)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서설",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8권, 3호, 1987, pp. 53-54.

〈표1〉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변화

(단위 : 명, %)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a	1985b (전국)
총 취업자	123,925	111,950	135,188	151,713	170,505	174,972	14,970,000
농림어업	88.1	78.6	72.2	68.1	62.1	55.7	24.9
광공업	2.1	5.3	4.7	4.5	4.9	3.7	24.5
사회간접자본및 기타서비스업	9.8	16.1	23.1	27.4	33.0	40.6	50.6

자료 : 「인구주택국세조사보고」, 1960, 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보고」, 1966,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75, 1980, 1985a,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5b, 경제기획원

〈표1〉에서 보면 농림어업부문의 노동력 규모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광공업부문의 산업입지조건의 불비와 관광개발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억제효과 때문에 노동력을 흡수할 노동시장이 극히 취약하고, 서비스 산업의 노동력은 대폭 증가하였다. 3차산업부문 취업자의 증가는 관광분야의 산업기반 확충으로 상대적 과잉인구를 구성하는 전통적 농업부문 노동력의 유입에 따른 퇴적과 신규노동력이 유입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농업분야가 아직도 취업자의 절반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농업부문의 유인적 요인의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내 제조업부문의 노동력 흡수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타지역 노동시장으로의 노동력유출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은 고립적 노동시장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취업자 구성을 성별로 보면 통계적 특정화(statistical specification)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인 1985년의 경우 산업별로 각각 남자는 47.5, 4.9, 47.6%의 구성을 보이는 반면 여자는 65.8, 2.2, 32.0%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표2). 구성변화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가 농민분해의 폭이 여자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3차산업의 구성비가 훨씬 높다. 남자 비농취업자는 1970년에 38.9%이던 것이 1985년에는 52.5%로 변화하여 절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16.5%에서 34.4%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2/3가량이 농업부문에 잔류하고 있다. 비농부문 취업자 중 전통적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비농취업자의 절반이상에 이르러 이들 업종에 여성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이 비공식부문 종사자로 간주할 수 있다. 여성 취업자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업종이 사회관습상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조업부문의 협소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낮은 학력과 기술수준으로 입적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2〉 남녀취업자의 산업부문별 구성

(단위: 명, %)

	남 자				여 자			
	1970	1980	1985	1985*	1970	1980	1985	1985*
총 취 업 자	68,027	93,425	96,917	96,917	67,130	77,080	78,055	78,055
농 립 어 업	61.1	52.2	47.5	47.3	83.5	74.1	65.8	52.7
농 립 업	55.2	48.3			80.7	72.2		
어 업	5.9	3.9			2.8	1.9		
광 공 업	6.9	6.4	4.9	73.4	2.4	3.2	2.2	26.6
광 업	0.5	0.2	0.1	82.2	0.2	0.1	0.0	17.8
제 조 업	6.4	6.2	4.8	73.4	2.2	3.1	2.2	26.6
사회간접자본및 기타 서비스업	32.0	41.4	47.6	64.9	14.1	22.7	32.0	35.1
건기·게스·수도	0.4	0.8	0.9	92.4	-	0.1	0.1	7.6
건 설 업	6.2	7.8	7.9	90.5	1.2	0.9	1.0	9.5
도 매 업	0.3	1.1	13.4	47.2	0.3	0.6	18.6	52.8
소 매 업	4.6	6.9			5.8	8.5		
음식·숙박업	1.8	3.0	8.4	87.6	2.8	4.6	1.5	12.4
운 수 업	5.0	6.6			0.2	0.6		
통 신 업	0.7	0.9	2.7	61.6	0.2	0.5	2.1	38.4
금 용 보 험	0.5	0.7			0.2	0.9		
부 동 산	0.1	0.2	2.7	61.6	-	0.0	2.1	38.4
용 역 업	0.4	0.4			-	0.1		
공공행정 및 국제	4.0	4.0	14.3	67.1	0.5	1.0	8.7	32.9
사 회 서 비 스 업	4.6	5.7			1.3	3.1		
개인및가사서비스	3.4	3.3	14.3	67.1	1.6	1.8	8.7	32.9

자료: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75, 1980, 1985, 경제기획원

주: 1985*는 남녀구성비임.

2. 직종별 취업구조

1960년의 직종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 종사자가 88.1%로 가장 많고 생산·운수장비관련직, 판매직, 서비스직 종사자가 3.2, 2.6, 1.9%의 순으로 전 자본재부문인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압도적이다(표3).

〈표3〉 직종별 취업구조의 변화

(단위 : 명, %)

	1960	1970	1975	1980	1985a	1985b(전국)
총 취업자	123,805	135,021	150,291	170,505	174,972	14,970,000
전문기술및관련직	1.7	2.8	2.9	3.8	5.2] 7.3
행정·관리직	0.7	0.6	0.4	0.6	0.7	
사무직	1.8	4.0	4.7	6.0	7.6	11.5
판매직	2.6	5.6	8.0	8.4	9.7	15.5
서비스직	1.9	4.4	5.3	5.4	7.9	10.8
농림어업직	88.1	72.0	68.4	61.8	55.2	24.6
생산및운수장비 관련직, 단순노무자	3.2	10.6	10.3	14.0	13.7	30.3

자료 : 〈표1〉과 같음

이 때만 해도 제주사회는 전 자본재부문이 지배적인 농업사회로서 사회분화와 직업분화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에는 농림어업종사자가 55.2%로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생산·운수장비관련 구성비가 13.7%, 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 종사자가 각각 9.7, 7.9, 7.6%로 전통적·근대적 서비스업에 관련된 직업종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비교적 두드러지게 증가한 생산·운수장비관련직(직업분류기호 7/8/9)의 경우 제조업부문과 관련된 기능공의 숫적 증가라기보다는 운전사 및 건설관련 단순노무자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종별 구성의 변화를 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고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종사자와 일정한 기술을 요구하는 생산·운수장비관련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표4). 따라서 이 부문의 직종별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성과 같은 자연적 조건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매직, 서비스직과 관련된 직종에는 성과 같은 자연적 조건의 차별화가 덜 나타나고 세부직종에 따라서는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4〉 남녀취업자의 직업별 구성

(단위: 명, %)

	남 자					여 자				
	1960	1970	1980	1985	1985*	1960	1970	1980	1985	1985*
총 취업자	55,295	67,890	93,425	96,917	96,917	68,510	67,130	77,080	78,055	78,055
전문기술및 관련직	3.3	4.5	5.2	6.2	66.4	0.4	1.2	2.2	3.9	33.6
행관 리 직	1.4	1.2	1.1	1.2	98.3	0.2	0.1	0.1	0.1	1.7
사관 무련 및 직	3.6	6.6	7.2	8.6	62.4	0.2	1.3	4.5	6.4	37.6
판 매 직	2.8	4.9	7.7	8.4	48.3	2.5	6.3	9.2	11.2	51.7
서 비 스 직	2.4	4.7	5.0	6.5	45.1	1.4	4.0	5.9	9.7	54.9
농림어업직	80.7	60.7	51.7	46.7	46.9	94.1	83.5	74.0	65.7	53.1
생산및운수 장비관련직, 단순노무자	5.8	17.4	22.1	22.4	90.4	1.2	3.6	4.1	3.0	9.6

자료: 〈표1〉과 같음

주: 1985*는 남녀구성비임.

〈표5〉를 보면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생산·운수장비운전 및 단순노무직 취업자는 거의 전부가 고졸이하이며(한데 묶어 있어 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중졸이하가 대부분일 것이다) 판매·서비스직도 유사하다. 이들 직종에는 국졸이하의 여자가 42.0~62.0%에 이르고 있다. 사무직에는 중·고졸(실제로는 고졸)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며 대졸도 14%를 점하고 있다. 전체의 5%미만에 불과한 전문 기술직과 행정직은 대졸이 주류를 이루고 남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들 취업자들은 종사상 지위로 볼 때 모두 임금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차별화를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고용과정과 직종 배치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 저학력소유자는 하위 직종에 배치되어 상위 직종으로의 상승이동이 제한된 분절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종사상 지위별 취업구조

일반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전 자본제부문의 분해를 지속적으로 수반해온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자본-임노동관계의 확대·심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표5〉 학력별 직종별 취업자 구성(1980)

(단위: 명, %)

		계	국졸이하	중·고졸	전문대졸이상
전직종	계	65,170	27.7(100.0)	60.8(100.0)	11.5(100.0)
	남	45,145	22.0(54.9)	64.4(73.4)	13.6(82.4)
	여	20,025	40.8(45.1)	52.7(26.6)	6.5(17.6)
전문기술및행정직	계	7,647	3.7(1.5)	34.8(6.7)	61.5(63.0)
	남	5,889	2.7(0.9)	35.2(5.2)	62.1(48.9)
	여	1,758	6.7(0.6)	33.7(1.5)	59.6(14.1)
사무직	계	10,184	2.7(1.6)	83.3(21.4)	14.0(19.1)
	남	6,725	2.6(0.9)	78.4(13.3)	19.0(17.1)
	여	3,459	3.0(0.6)	92.8(8.1)	4.2(1.9)
판매직	계	14,297	39.7(31.4)	55.3(20.0)	5.0(9.5)
	남	7,215	22.3(8.9)	68.6(12.5)	9.1(8.8)
	여	7,082	57.5(22.5)	41.8(7.5)	0.7(0.7)
서비스직	계	9,246	32.8(16.8)	64.4(15.0)	2.8(3.5)
	남	4,656	23.8(6.1)	71.8(8.4)	4.4(2.7)
	여	4,590	42.0(10.7)	56.8(6.6)	1.2(0.8)
생산 및 운수장비 관련직,단순노무직	계	23,796	37.1(48.7)	61.4(36.9)	1.5(4.9)
	남	20,660	33.2(37.9)	65.1(33.9)	1.7(4.7)
	여	3,136	62.0(10.8)	37.5(3.0)	0.5(0.2)

자료: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0, 경제기획원

주: 1) ()의 숫자는 남녀구성비임.

2) 농림어업직은 제외시켰음.

〈표6〉을 보면 1960년에 피고용자가 전체취업자의 10.4%에 불과하던 것이 1986년에는 36%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1966~1975년의 자료를 보면 피고용자의 비중이 고용안정성이 있는 상용이 높은 것이 아니라 고용 불안정성을 갖는 임시고·일고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 피고용자의 경우 그 규모가 남자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임시고·일고의 비중이 상용에 비해 압도적이다. 이처럼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제주지역의 자본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과잉인구를 임시고·일고의 형태로 고용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줄여가는 과정, 즉 자본

〈표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단위: 명, %)

		계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용자	임시·일고
1986	계	211,000	40.8	23.2	36.0	23.7
	남	114,000	50.0	6.1	43.9	18.0
	여	97,000	29.9	43.3	26.8	34.6
1980	계	170,505	45.9	29.1	25.0	
	남	93,425	56.1	10.7	33.2	
	여	77,080	33.5	51.5	15.0	
1975	계	151,713	40.6	31.4	28.3	52.7
	남	79,077	49.1	11.5	39.4	46.0
	여	72,636	31.4	53.1	15.5	71.3
1970	계	135,166	42.4	29.3	28.3	60.6
	남	68,035	52.5	9.7	37.8	51.8
	여	67,131	32.2	49.6	18.7	78.5
1966	계	111,950	46.6	34.3	19.1	53.1
	남	60,360	59.4	14.1	26.5	46.6
	여	51,590	31.6	58.0	10.4	72.5
1960	계	124,105	43.6	46.0	10.4	
	남	55,540	60.1	22.6	17.3	
	여	68,565	30.2	64.9	4.9	

자료: 1960~1980년의 자료는 〈표1〉과 같음.

「제2차 고용구조 특별조사 결과보고」, 1986. 경제기획원

주: 자영업주 속에 고용주가 포함되어 있음.

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통해 과잉인구를 흡수·배출하는 것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자본자체가 고용흡수력을 갖지 못한 매우 취약한 소규모 형태이기 때문인 것이다. 광공업부문의 부재와 3차 서비스산업부문의 과도한 비중이 이를 반증하여 준다. 이들 산업에서는 영세 자영업과 소생산부문이 대다수이므로 고용효과가 작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전국(1986년 현재 48.8%)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아서 전체 취업자의 64.0%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중 농림어업부문의 자영비중이 1966년의 90.5%에서

1986년의 74.7%로 계속 감소하여 왔지만 그 비중은 매우 크다. 전 자본제부문인 농림어업부문을 제외한 비농부문을 보면, 자영이 1970년까지 다소 감소하는(1966년의 35.8%에서 32.7%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5년(34.5%)부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 1986년(1980년의 41.8%에서 35.7%로)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¹⁷⁾ 이는 비농피용의 비중이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규모성장이 일정하게 제약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시만 따로 분리해 보았을 때에도 비농자영비율은 약 40%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지역 전체의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지는 않는다.¹⁸⁾ 이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별에서는 여자(52.6%)보다 남자(63.8%)가 피용비율이 높다. 이처럼 남자(36.2%)보다 여자(47.4%)의 자영비율이 높은 것은 무급 가족종사자 수에 있어서 여자가 더 많고(남자가 909명인데 비해 여자는 4,739명이다) 성적 요인이 시장능력요인과 결합하여 노동시장에서 고용차별을 더 많이 받는 데서 연유한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임노동의 확대가 제약되는 것일까? 이는 크게 볼 때 주변부사회의 특성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주변부사회의 산업화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영향하에서 신국제분업질서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종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¹⁹⁾ 자본-임노동의 발전과정은 서구의 고전적 형태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내생적 사회변화과정인 아닌, 세계자본주의의 중심부의 요구에 의해 불균등하게 산업화가 진행되어 프롤레타리아화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진행된다.²⁰⁾

중앙에 종속된 주변으로서의 지역사회는 세계자본주의체제와 국내의 중앙으로부터의 규정성에 의해 동시에 제약되는 특성을 지닌다.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은 세계자본주의체제와 한국자본주의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차 서비스산업이 비대한 것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분업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입지여건의 취약성으로 인해 기형적 산업구조를 갖는 제주지역은 고용흡수력이 큰 제조업부문의 규모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²¹⁾ 생산구조상의 통합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임노동의 창출이 일정하게 제지될 수 밖에 없다.

17) 1980년 전국의 비농자영구성비가 32.3%인 것에 비하면 제주지역의 41.8%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서관모,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사회통계적 연구", 「산업사회연구」 제1집, 한울, 1985, pp. 66-67.

18)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서」, 1980.

19) Evans, P., "Industrialization and Imperialism: Growth and Stagnation on the Periphery", *Berkley Journal of Sociology*, 1975; Wallerstein, I.,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20) 조희연, "종속적 산업화와 비공식부문", 박현채 외,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돌베개, 1985, pp. 291-293.

21) 광공업분야 전체 1,309개 사업체(제조업이 1,298개 업체) 중 종업원 5인미만의 업체가 1,097개로 83.8%를 차지하고 있다(경제기획원, 「산업센서스보고서」, 1985.)

Ⅲ. 임금격차의 구조

노동자 일반의 경제적 상태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차별화함으로써 나타난다. 노동력은 일차적으로 성, 인종, 연령과 같은 자연적·귀속적 요인, 학력과 같은 성취적 요인 등에 의해 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본은 이러한 노동자의 객관적 요인을 차별화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와 잉여가치를 최대한으로 추구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해당사회의 사회문화적 조건(관습, 남존여비, 문관우위 등)과 기술발전 수준이 차별화의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증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학력과 성에 의한 노동력차별은 임금차별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학력과 성의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이중적 차별은 직종별 임금격차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²²⁾ 이는 저학력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는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 등의 하위 직종에 몰려 있고 고학력 남성노동자는 전문기술직, 관리, 사무직 등에 집중되는 직종배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7〉 임금계층별 성별근로자 구성(1986)

(단위: 천원, %, 명)

임금 계층	계	남 자	여 자
~99.9천원	2.7	1.1	6.4
100.0~139.9	13.4	8.3	24.8
140.0~199.9	17.9	15.0	24.6
200.0~259.9	21.5	19.9	24.9
260.0~299.9	10.1	8.5	13.7
300.0~399.9	15.0	19.3	5.4
400.0~499.9	8.8	12.7	0.1
500.0~699.9	5.5	7.9	0.1
700.0~	5.1	7.3	-
계	100.0(16,734)	100.00(11,593)	100.0(5,141)

자료: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1986, 노동부

주: 임금=정액+초과급여+(년간특별급여/12)

22) 정성기, "한국의 노동시장·임금의 구조변동과 노사관계", 「한국사회연구」 제4집, 한길사, 1986, pp.140-141.

〈표7〉은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의 임금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가 전체의 34.0%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24.4%인데 비해 여자는 55.8%에 이르러 전체 여자의 절반이상이 20만원 미만의 저임금계층에 집중되어 있다.²³⁾ 이렇게 성별에 따라 임금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연령구성에 있어서 대다수 여자가 저연령층에 속하기 때문이다(29세 미만의 경우 남자는 전체의 21.7%인데 비해 여자는 78.1%에 이르고 있다). 임금이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비를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할 때 미혼여성이 대부분 차지하는 여자의 임금이 낮은 것은 한편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나타난 사실은 산업별, 직종별 특성은 물론 노동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금격차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성별, 학력별, 직종별, 산업별 임금격차의 상황을 조사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표8〉 성별, 학력별, 직종별 임금격차

구 분		빈 도	월 평균 임금 (만원)	지수(%)	F-ratio
성 별	남	171	36.4	(100.0)	18.7*
	여	57	24.3	66.8	
	계	228	33.4		
학력별	대졸이상	79	45.8	(100.0)	27.2*
	고졸	70	30.2	65.9	
	중졸	37	27.9	60.9	
	국졸	41	19.8	43.2	
	계	227	33.8		
직종별	전문기술직	47	47.6	(100.0)	14.5*
	사무직	58	36.8	77.3	
	판매직	17	26.7	56.1	
	서비스직	18	29.5	61.9	
	생산, 운수장비관련직, 단순노무직	88	25.6	53.8	
	계	228	33.4		

주: *는 $p < 0.001$ 를 나타낸다.

23) 〈표7〉의 임금계층별 분포는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10인미만 기업의 상용, 임시·일고와 10인이상 사업체의 임시·일고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감안한다면 10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저임금계층에 속하는 근로자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표8〉을 보면 성별, 학력별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의 월평균임금총액이 36.4만원인데 비해 여자의 그것은 24.3만원으로 남자의 임금이 여자보다 1.5배 많다. 성별 임금격차는 일단 노동생산성의 차이와 성적 요인에 의한 차별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이다. 자본은 성적 요인을 기초로 임금차별을 함으로써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직종, 학력, 기술수준 등이 남자와 동일할지라도 여자라는 이유로 동일노동에 대해 차별한다(표10과 표11 참조). 이처럼 임금구조에 있어서의 성별 노동시장의 분화는 전통적 가부장제하의 남녀차별 의식에 기초하여 자본이 자연적 속성인 성을 선발기제(screening device)의 한 요인을 삼아 차별화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표9〉 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취업자수	평균임금	지수(%)
합	계	16,734	344,254	
	남	11,953	401,509	(100.0)
	녀	5,141	215,143	53.6
제조업	계	1,193	215,978	
	남	603	304,515	(100.0)
	녀	590	125,492	41.2
건설업	계	1,949	296,006	
	남	1,833	306,626	(100.0)
	녀	116	118,326	38.6
도소매·음식·숙박업	계	1,488	311,152	
	남	859	361,861	(100.0)
	녀	629	241,900	66.8
운수·창고·통신업	계	5,391	274,436	
	남	4,637	284,487	(100.0)
	녀	754	212,623	74.7
금융·보험업	계	2,589	512,459	
	남	1,595	627,069	(100.0)
	녀	994	257,573	41.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계	4,124	401,777	
	남	2,066	618,993	(100.0)
	녀	2,058	183,714	29.7

자료: 〈표7〉과 같음

주: 임금 = 정액 + 초과급여 + (연간특별급여액 ÷ 12)

성별 임금격차를 산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그 차이는 산업에 따라 증폭이 심하다(표9). 도 소매·음식·숙박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여자의 임금수준은 남자의 그것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서는 남자가 세배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물론 동일 산업내에서도 기업규모, 성, 학력, 직종 등 다양한 임금수준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표10)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

(단위 : 만원)

	남(N=171)	여(N=56)	F-ratio
국 졸	21.9	11.9	7.7*
중 졸	29.3	16.1	8.6*
고 졸	35.0	20.2	24.0**
대 졸 이 상	48.2	37.8	3.1(N.S)
F-ratio	19.9**	13.6**	

주 : 1) 가로와 세로의 유의도는 각각 성과 학력을 통제하였을 경우를 나타냄.

2) * 는 p(0.01)를, ** 는 p(0.001)를 각각 나타낸다.

학력은 개인의 지위결정과 획득에 핵심적 지표로 작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채용, 승진 및 임금수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표8>을 보면 고졸과 대졸사이의 임금격차가 현저하여 고졸은 대졸이상의 임金的 65.9%에 머무르고 있다. 동일 성별내에서도 학력 간에는 뚜렷한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표10). 이러한 학력별 임금격차는 고학력자가 위세높은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고용관행상의 차별과 임금차별에서 연유한다. 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지역노동시장에서도 전국노동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과 학력의 조건을 기준으로 노동력차별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임금격차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과 학력이 결합된 이중적 노동력차별은 직종별 임금격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문기술직과 같은 고위 직종의 노동자들은 다른 하위 직종의 노동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판매직, 생산·운수장비운전 및 단순노무직 노동자들은 노동과정의 이질적이긴 하지만 임금수준이 비슷한 직종들로 정신노동 위주의 직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 직종별 임금격차를 성별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표11). 전문기술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그것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사무관련직, 서비스직, 생산·운수장비운전 및 단순노무직의 경우 그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

〈표11〉 성별, 직종별 임금격차

(단위 : 만원)

	남(N=171)	여(N=57)	F-ratio
전문기술직	52.5	40.4	3.2(N.S)
사무직	43.3	19.7	26.5***
판매직	31.6	17.5	4.7*
서비스직	39.8	13.3	21.9**
생산 및 운수장비 단순노무직	27.1	11.8	18.9***
F-ratio	14.8***	30.1***	

주 : 1) 가로와 세로의 유의로는 각각 성과 직종을 통제하였을 경우를 나타냄

2) *는 $p < 0.05$ 를, **는 $p < 0.005$ 를, 그리고 ***는 $p < 0.001$ 를 각각 나타낸다.

그런데〈표10〉와〈표11〉에서 대졸과 전문직의 경우 남녀의 임금격차는 있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졸이상의 여성이 사회서비스업(예컨대 학교)에 고용된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제주지역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임금차별은 성별, 학력별, 직종별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를 통해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경력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역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본-임금노동관계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육지로부터 고립적이기 때문에 신규노동력과 농촌노동력이 상대적 과잉인구를 이룰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은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를 기반으로 하여 저임금으로 저학력노동자와 여성노동자를 최대한 차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제주지역은 자본축적에 있어서 지역적 종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본축적의 정도와 수준이 상당히 빈약하다. 영세한 자본은 자본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성별, 학력별, 직종별로 임금을 최대한 차별화한다. 이는 상대적 과잉인구가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Ⅳ. 부문간 이동 및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의 이질성

우리는 앞에서 후진적 산업구조를 갖는 제주지역에서 자영비율이 높고 자본-임노동의 관계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사회경제구조하에서 광공업부문 노동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농촌으로부터 유출되는 노동력과 공식부문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도시의 잔여 노동력은 3차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도시경제의 핵심분야에 흡수되지 못하고 유통과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판매, 서비스부문의 자영업, 건설업의 일용노동, 하위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비공식부문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식-비공식부문 노동시장간의 노동이동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통한 노동력이동 상황을 살펴보자.

〈표12〉 종사상 지위별 노동력 유입구조(시부)

(단위: 천명,%)

1986. 11 1985. 11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시 일용	고용주	상용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재
자영자	17(89.5)	○	○	○	○	○	○	19
무급가족 종사자	○	7(87.5)	○	-	○	-	○	8
임시·일용	○	-	6(85.7)	○	○	○	○	7
고용주	○	-	-	3(100.0)	○	○	○	3
상용	1(5.3)	○	○	○	32(88.9)	○	1(1.5)	36
실업자	○	○	○	○	1(2.8)	1(50.0)	○	-
비경제활동 인구	1(5.2)	1(12.5)	1(14.3)	○	2(5.6)	1(50.0)	64(97.0)	-
계	19(100.0)	8(100.0)	7(100.0)	3(100.0)	36(100.0)	2(100.0)	66(100.0)	73(100.0)

자료: 「제2차 고용구조 특별조사 결과보고」, 1987, 경제기획원

주: 1) 단위가 1,000명이어서 총수와 각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2) - 해당숫자 없음, ○단위 미만

〈표12〉와 〈표13〉은 1985년 11월부터 1986년 11월까지의 1년동안 종사상 지위별 유출입구조를 나타낸 것이다.²⁴⁾ 유입구조를 보면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의 경우 85.7%가 1년동안 동일한 종

24) 노동력 유입구조는 한 부문의 노동력이 다른 어떤 부문으로부터 충원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유출구조는 한 부문의 노동력이 다른 어떤 부문으로 이동해 나가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윤진호, "도시비공식부문의 노동력이동에 관한 일 연구", 「논문집」 5집,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 1986.) 위표들은 1년동안의 이동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13〉 종사상 지위별 노동력 유출구조(시부)

(단위 : 천명, %)

1986. 11 1985. 11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시·일 용	고용주	상 용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계
자 영 자	17(94.4)	○	○	○	○	○	○	18(100.0)
무 급 가 족 종 사 자	○	7(87.5)	○	—	○	—	○	8(100.0)
임 시·일 용	○	—	6(100.0)	○	○	○	○	6(100.0)
고 용 주	○	—	—	3(100.0)	○	○	○	3(100.0)
상 용	1(2.9)	○	○	○	32(94.1)	○	1(3.0)	34(100.0)
실 업 자	1(33.3)	○	○	○	1(33.4)	1(33.3)	○	3(100.0)
비 경제 활 동 인 구	1(1.4)	1(1.5)	1(1.4)	○	2(2.9)	1(1.4)	64(91.4)	70(100.0)
취업자 계	18	8	6	3	34	—	—	69(100.0)

자료 : 〈표12〉와 같음.

주 : 〈표12〉와 같음.

사상 지위에서 체류하여 이들의 취업상태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영자의 경우는 89.5%가 종사상 지위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있으며 10.5%만이 다른 범주로 부터 이동해왔다. 임시·일용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부터 충원되는 비율(14.3%)이 큰데 비해 자영자의 경우는 상용노동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부터 각 5.2%씩 충원되었다. 한편 유출구조에서도 자영자의 경우는 5.6%가 다른 범주로 노동력이동을 하고 있으나 임시·일용노동자는 100% 동일 범주에 체류하여 타범주로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임시·일용노동자는 타 범주로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과잉인구층을 형성하고 있다. 상용노동자의 유출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 범주로 이동한 5.9%중에서 2.9%는 자영자층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용주의 이동상황을 보면 1년동안 유입·유출이 모두 자체범주에서 일어나고 있다.²⁵⁾

위의 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자영업자(자영자, 고용주포함)의 프롤레타리아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규모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자영업자층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 비공식부문의 주요 부문을 구성하는 임시·일용노동자들은 상용노동자층으로의 진입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영업으로의 상승이동도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위표에 나타난 종사상 지위상의 이동상황은 1년동안의 짧은 기간내 변동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5) 〈표12〉 〈표13〉에서 '고용주'는 1인 이상의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채)을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상공 생산활동을 하는 영세업주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사업체규모, 직종 및 취업의 성격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부문간 노동시장의 이동을 관찰할 수 없다. 이들을 고려했을 때 위 표에서 비공식부문은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 등의 전부와 고용주, 상용 등의 일부를 포함한다.

현실의 사회에서 어떤 단위(사업체, 개인, 직종 등)가 공식 또는 비공식부문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공식-비공식부문을 경계짓는 경험적 기준들은 그간 많은 논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지만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⁶⁾

비공식부문은 자본과 기술의 제약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유통·분배를 통해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소규모 단위²⁷⁾이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낮고 상대적으로 공식부문에 비해서 생산성, 임금 및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성이 강하다.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공식부문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취업유형과 직종의 성격, 조직특성인 사업체규모를 기준으로 공식·비공식부문을 분류하였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주와 상용노동자, 국가기구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3차산업내의 전기, 가스·수도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회서비스업의 경우는 규모에 관계없이 공식부문으로 분류하고 비공식부문에는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종사자(고용주와 자영자 포함)와 임시·일고노동자(5인 이상 규모일지라도 상용이 아닌 임시·일고노동자 포함)를 포함시켰다.²⁸⁾

우리는 공식·비공식부문 노동시장간의 노동력이동과 관련된 입장을 두가지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장분절론에서 처럼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력의 이질성을 강조함으로써 두 노동시장은 상이한 노동력충원기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공식부문은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과 기술을 가진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비공식부문은 낮은 수준의 학력과 기술을 갖는 노동력으로 구성된다. 다른 하나는 비공식부문에 잠정 취업한 이농노동력

26) 공식·비공식부문의 경제구분에 관련된 여러 기준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것. Bromlay, R., *op. cit.*, ; 조형, "한국의 도시비공식부문 근로자에 관한 연구", 「논총」제41집, 이화여대, 1982; 윤진호, "도시비공식부문", 이대근·정운영(편),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1984 ; 이종훈, "한국의 농촌-도시간 노동이동 경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5; 조희연, *op. cit.*, ; 최재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상호교류", 「산업사회연구」, 제1집, 들베게, 1985.

27) Sethuraman, S. V., *The Urban Informal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Employment, Poverty and Environment*, ILO, 1981, p. 17.

28) 이러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공식·비공식부문을 경계짓는 이전의 연구는 윤진호(1984, 198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해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서」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의 자료를 기초로 제주지역의 비공식부문 규모를 잠정적으로 추정하면 1985년 현재 47,641명이다(제조업 4,833명, 건설업 7,590명, 서비스업 7,523명, 도소매·음식·숙박업 23,976명, 창고, 운수업 3,719명). 이는 비농어업부문 취업자(77,574명)의 61.4%에 해당한다.

은 훈련을 통하여 도시경제에 적합한 기술습득과 직업탐색을 함으로써 일정 시간경과후에 공식부
문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⁹⁾

〈표14〉 학력별 부문간 노동이동

(단위 : %, 명)

학력 부문이동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계
F→F*	3.6	17.5	29.9	67.3	31.3(122)
F→I	5.9	8.1	17.9	9.2	11.3(44)
I→I*	79.7	62.2	41.0	19.4	47.9(187)
I→F	3.6	12.2	7.5	4.1	6.7(26)
I→A→I	3.6	—	0.7	—	1.0(4)
F→A→I	2.4	—	1.5	—	1.0(4)
I→F→I	1.2	—	1.5	—	0.8(3)
	100.0(84)	100.0(74)	100.0(134)	100.0(98)	100.0(390)

주 : 1) F : 공식부문 I : 비공식부문 A : 농업부문

2) *는 처음 직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포함

〈표14〉를 빌어 위 입장을 점검해보자. 이 표에 의하면 전체 390명중 79.2%인 309이 공식·비
공식부문중 어느 한 부문에만 종사해 왔다. 일생동안 공식부문에만 종사한 사람은 31.3%인데 비
해 비공식부문에만 종사한 경우는 47.9%로 훨씬 많다. 두 부문간 직업이동을 한 사람은 18%에
불과하다. 이 수치상에서 보면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
우 한 개인이 어느 부문에 취업·고용되면 타부문으로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학력별로 이동상황을 보면, 비공식부문에만 종사한 경우보다 공식부문에만 종사한 경우가 학
력수준이 훨씬 높다. 이는 학력수준이 노동시장에서 선발기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
증해주고 있다.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공식부문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비공식부문에 정체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부문에 체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비공식부문에의 취업이 교육·기술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한편

29) Todaro, M. P.,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1969; "Comment", *Regional
Development Dialogue*, vol. 5, No. 2, 1984.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으로 이동한 경우보다는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한 경우가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졸이상의 학력자들이 정년퇴직으로 또는 권위주의적, 관료적 노동통제가 이루어지는 공식부문의 노동과정하에 계속 머무르기 보다는 자율성과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비공식부문내의 상위계층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구조변동이 주는 영향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부문간 이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문간 노동시장의 분절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부문 노동시장으로의 단계적 이동을 주장하는 두번째 입장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러면 비공식부문은 진입이 용이하고 낮은 수준의 시장능력을 갖는 노동력으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비공식부문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얻어질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비공식부문은 통일된 단일의 집단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매우 이질적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은 단일의 계층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계층분화의 현상도 두드러질 것이다. 즉 취업조건과 소득수준은 물론이고 교육, 자본, 기술수준 등의 시장능력(market capacity)의 차이에 따라 비공식부문내부의 계층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

공식부문은 비공식부문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고 또 주기적으로 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비공식부문내의 취업과 소득의 불안정성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취업안정도가 높은 공식 부문의 일자리를 구해 이동하고자 한다. 대체로 공식부문의 직종들이 비공식부문의 그것에 비해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조업과 3차 서비

<표15> 비공식부문의 계층 분화

	계층A	계층B	계층C	계	유의도
시 장 능 렷 (자본및기술)	무자본, 무기술 (단순기술포함)	영세자본 기능기술	소자본 고급기능기술		
취 업 유 형	개인서비스노동자 단 순 노 동 자 판 매 직 종 사 자	건설기능노동자 운전기사, 정비 기술자, 영세자영 판매	사업주 (제조업체고용주, 서비스업관련 사업주)		
평 균 소 득 (만 원)	21.5	31.8	63.5	32.3	F=36.2 p<0,001
소 득 범 위	9~50	14~80	30~150		
평 균 교 육 년 한	7.4	8.8	10.6	8.5	F=7.3 p<0,001
빈 도	85	96	31	212	

스산업에 있어서 노동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이 권위주의적 통제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오히려 공식부문을 벗어나서 작업상의 자율성이 유지되는 독립적인 자영자로 이동을 시도할 수 있다. 안정성이 확보되는 비공식부문의 일부 상위직종인 경우에는 공식부문의 직종보다 높은 시장능력이 요구되며 진입 또한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자본과 기술을 갖춘 독립적인 자영판매나 제조·서비스업 등은 부문내의 상승이동의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이동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5〉는 비공식부문을 자본과 기술의 수준을 기준으로 계층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동일 직종이라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혹은 종사자의 시장능력에 따라 소득의 창출효과는 다르다. 다양한 소득의 범위를 단일치인 평균으로 나타내면 계층별로 소득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과 기술의 수준에 따라 비공식부문내에서 위치하는 계층적 지위는 달리 나타난다. 계층C는 다른 계층보다 자본규모에 있어 우월하며 약간의 노동력을 고용하여 주로 유통, 판매, 서비스업체를 경영한다. 이들 사업에 투자된 자본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3차 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업종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 계층은 공식부문 노동자와 비공식부문내에서도 이동의 목표로 삼는 집단이지만, 일정규모의 자본, 고급기능기술 및 경영능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가 않다.

계층B는 기능기술과 영세자본 중 어느 하나를 소유한 계층으로 운전사, 정비기술자, 양복제조 기술자, 기능건설관련노무자, 구멍가게 같은 영세자영판매자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 계층의 직종들은 계층C와 A사이의 중간위치에 있으며 계층이동에 있어 상·하향이동의 잠재성을 갖는다. 자본과 기술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는 최하층인 계층A에 들어가는데, 간혹 기술을 소유한 경우라도 짧은 시간내에 습득이 가능한 단순기술에 불과하다. 품팔이, 판매점원, 파출부 등 개인서비스 노동, 건설관련 단순노무자, 부두 단순노동자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비공식부문의 내적 다양성을 통해 우리는 비공식부문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집단이 아니며 진입하기에 용이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A와 B에의 접근은 쉬울 수 있으나 계층C는 일정규모이상 자본, 기술 및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진입이 상당히 어렵고 소득수준 또한 공식부문의 1차시장에 비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앞서의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볼 때 비공식부문은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노동시장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분절성이 현상된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지역노동시장은 전국노동시장의 운동원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체적인 성격과 모습을 드러낸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노동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주지역은 전국과 비교할 때 농업부문의 취업인구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광공업부문은 매우 취약하여 자본-임노동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3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노동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임노동화의 심화경향은 제주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상업적 농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편성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직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가 여전히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고 전통적, 근대적 서비스업에 관련된 직업종사자가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둘째, 임금수준의 격차를 기준으로 볼 때 성별, 학력별, 직종별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분절은 노동생산성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적(남존여비의식, 육체노동에 대한 정신노동의 우위 등) 조건위에서 자연적, 사회적 요인을 차별화함으로써 표현된 결과이다. 지역노동시장에서도 전국노동시장에서처럼 성과 학력의 요인을 기준으로 노동력차별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직종별 임금격차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에 있어서 노동집약적인 자본은 신규 노동력과 농촌 노동력의 상대적 과잉인구를 기반으로 노동력을 성별, 학력별, 직종별로 최대한 차별함으로써 자본간 경쟁을 극대화하고 잉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데서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셋째, 노동력 이동을 종사상 지위의 이동상황에 기초해서 보면 자영업자의 프롤레타리아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임시·일고 노동자층은 상용으로의 이동이 매우 어렵다. 학력수준이 낮은 노동력일수록 공식부문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비공식부문의 하위직종에 정체되어 있다. 비공식부문 취업자는 공식부문 직무에 적합한 기술습득과 직업탐색을 위해 잠정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만큼 노동이동에 있어서 두 부문의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부문 전체가 취업하기에 용이한 것은 아니다. 비공식부문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게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진입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또한 공식부문의 1차노동시장에 비해 낮지 않다.

이상의 논의는 몇가지 연구상의 한계위에서 얻어진 것이다. 첫째, 공식부문의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의 분절현상을 자료의 제한으로 밝히지 못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 기제를 포괄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둘째, 임금격차를 다룸에 있어서 경력변인을 통제하지 않아 임금격차의 요인을 단순화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셋째는 공식적인 자료와 양적 조사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변칙적이고 전략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례분석의 유용성을 소홀히 하였다. 넷째는 자본축적과 노동과정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고 연구주제를 지역범주에 한정시켜 다룸으로써 전국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이러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Cheju Local Labor Market

Kim Jin-young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a segmental structure and its characteristics of Cheju local labor market, based on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ies and urban informal sector theories. For this purpose, the employment structure was reviewed first in Chapter 2, and then the wage differential structure was described in Chapter 3. In Chapter 3, the labor market structure, which is usually conceptualized on the basis of differentiation of labor forces under the capital in general rather than under individual capitals, was examined in terms of sex, education, and occupation. In Chapter 4, the intra-variability of informal sector and the mobility of labor force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s in were explored. It is because the size of informal sector in non-agricultural industry is relatively too bigger in Cheju, compared to it on a national scal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from the the official statistics and survey.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using 390 samples in Cheju and Sogwipo citi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mployment structure of labor forces

1) By Industry

Cheju local labor market is limited in size and growth in that the primary industry is too big and the secondary is too small. This draws the capital-labor relationship to be centered in the area of the tertiary industry. The employment structure by industrial sector shows 55.7% in the primary, 3.7% in the secondary, and 40.6% in the tertiary. As the agricultural sector still has a strong pull-factor of labor forces, the half and over among the total working population is working at agricultural sector. Cheju is characterized as an isolated labor market in that the labor forces are rarely relatively emigrated outside Cheju. By sex about 50% of the female labor forces are employed in wholesales and retail trades,

restaurants, and hotels, all of which may be defined as a sector of traditional service. One of the reasons for this may be that these jobs do not require a high leve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r skill, and need the female labor forces in terms of social custom and the nature of work.

2) By Occupation

The segmentation of labor market by occup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natural condition such as sex and by the social conditions such as formal credentials. In general, the high educated show a trend of being employed in non-manual job. For the males and females, the low educated tend to be employed in low-leveled jobs and show a high level of restriction in upward social mobility.

3) By the Status of Employment

The capitalistic development process which has accompanied continuously a decomposition of pre-capitalistic sector may be defined as a process of deepening the capital-labor relationship. The number of employees reaches only 36% of the total working population. Over the periods, 1966-1975, the proportion of casual workers(temporary and daily employees) was higher than that of permanent workers.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for the casual workers, the proportion of the females are overwhelming higher than that of the males.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the self-employed is significantly high represents a process of unequal industrialization in the peripheral societies. As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in Cheju shows a characteristic to be determined by both the world capitalist system and the domestic national core, the proletarianization of the self-employed is significantly limited in size and range.

2. The Structure of Wage Differential

The differentiation of labor forces by credential and sex is represented in wage differential. The wage differential in Cheju local labor market by sex, education, and occupation exists as is found in a national level.

The labor market by sex is segmented, because the capital has a characteristic to differentiate workers in terms of natural attribute(such as sex)as a screening device on the basis of the consciousness of sex differentiation under the traditional patriarchy. The wage differential by sex shows a difference by industrial sector.

For the wage differential by education, a remarkable difference is found between college and less-than high school, This differential is derived from the discrimination of labor forces in terms of recruit mechanism and wage level.

The double discrimination of labor forces combining sex and credentials is remarkably visible especially in the wage differential by occupation. Sales workers, service workers, and production-related workers, though they are very heterogeneous in their labor process, have a lower level of wage than mental workers. For the college gradu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age is found in professional jobs between sex.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by sex in the recruit process.

3. The Job Mobility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 and the Heterogeneity of Informal Sector.

The approach which argues the informal sector as being temporal can not be acceptable, because labor market segmentation is rather associated with inter-sectoral immobility. The survey showed that 79.2% of the total samples experienced job immobility between different sectors. The remaining 20.8% showed a job change between sectors.

The educational level is higher among the job changers who are employed in the formal sector than those in the informal sector. This finding may mean that formal credential functions as a factor of screening devices. The samples who have moved from formal sector to informal one are higher in educational level than the samples shows the opposite mobility. This may be interpreted as a fact that the workers employed in formal sector with a high educational level prefer to move to a higher stratum in informal sector with a high autonomy and a high income or wage rather than to stay under an authoritarian labor process in formal sector.

The approach which focuses on different recruiting system between sectors should be also necessary to be partially revised. The labor forces in informal sector are internally stratified according to market capacity including capital size, skill and educational level. The level of market capacity in the highest-stratified informal sector(C) is not lower than the level of primary labor market in formal sector. This stratum is a target for other strata in informal sector(A and B) and formal sector workers to want to reach.